

불어 원어민과 한국인 불어 학습자의 억양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French Intonation between French and Korean Learners.

김 현 기*
(Hyun-gi Kim)

ABSTRACT

The differences in French Intonation between French and Korean learners can be applied to French intonation education. One native French speaker and three native Korean speakers who learned French language at High school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The subjects spoke test phrases based on the different syntactic structures. High-Speed speech Analysis system(RILP) was used for this experiment. The different intonation curves were showed at the end of phrase and at the beginning of phrase between French and Korean learners. At the end of phrases, French intonation appeared to have increasing and decending pitch contours in the case of wh-question, exclamation and finality. However, Korean learner's intonation showed only increasing pitch contours. At the beginning of phrase, French intonation shows decending pitch contours in the case of minor continuation and command. In contrast, Korean learner's intonation appeared to have increasing pitch contours. The new intonation training system using PC can have great effect on education of French as a second language.

1. 서 론

억양은 강세 및 성조 등과 함께 음성 현상을 연구하는 운율론의 한 분야이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비교 음성학에서는 모음 및 자음 중심의 분절음 연구가 집중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따라서 억양, 강세 및 성조 등을 연구하는 초분절음 연구보다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초분절음의 비교 연구는 미진한 상태이고, 발표된 연구들의 대부분도 단편적인 것에 불과하여 초분절음 연구는 비어 있는 정보은행(de Bot, 1986)으로 비유되고 있다.

일반적인 언어학 연구에서도 억양은 언어의 이중분절에 포함되지 않는 '주변적 현상(fait marginal)' (Martinet, 1965) 또는 '이차적인 요소들을 구성하고 있는 모호한 단조 가락(Une vague cantilène qui constitue l'élément second-aire)'(Nyrop, 1963)으로 간주되어서 이에 대한

* 전북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억양은 메시지의 중요한 심장부(Fauré, 1976)로 인식되면서 이전의 Barker(1923), Coustenoble와 Armstrong(1934) 등 프랑스 억양의 개론적 연구와 더불어 1960년대에 이르러 음향 기자재의 발달과 함께 본격적으로 억양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는 미국의 음향 음성학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Delattre에서 찾을 수 있다. Delattre는 억양 연구의 기본 목적을 외국어 교육에 두고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와 불어의 통사론적인 관점에서 의미의 차이를 각 언어의 운율 형태로 비교 설명하면서 불어 억양의 모형을 제시하였다. Léon, P. R.과 Léon, M.(1964)은 불어 억양의 경계 표시 기능을 의미 군들과의 관계 속에서 체계를 세우고 간결한 문법 구조를 불어 억양 구조를 기초로 하여 통사론과 구문의 음악성 관계로 설명하였다. 이어서 Léon, P. R과 Martin, P.(1971)와 Faure(1976)는 억양의 비교 연구는 출발 언어와 도착 언어 사이 비교 분석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Barret(1968)는 운율의 변동을 '사과의 표현'으로 보고 운율 변동의 특수 형태를 엄격한 규칙 또는 절대적인 특성 네 가지 원리로 분류하였다.

Callamand(1972)는 억양 기능의 하부 구조로 언술(énoncé) 억양과 담화(discours) 억양으로 분류하여 6가지의 억양 부호를 도식화하였고, Martins-Ballar(1976)은 억양을 통사적 기능, 분절적 기능 그리고 언술적 기능으로 분류 설명하였다. Faure 및 Di Cristo(1977)는 실제 언어 환경에서 일어나는 67 가지의 마이크로 대화(micro-dialogues)를 추출하여 텍스트 밑에 9가지의 억양 표기로 각 언어 상황을 설명하였다. 최근 Champagne-Muzar, Bourdage 및 Schneiderman(1986)과 Walz(1989)는 불어 운율 요소(억양 및 리듬)는 불어 언어음과 함께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16가지의 억양 형태로 나누어 분류 설명하였다.

불어 억양의 연구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성대 활동에 의한 유성 및 음의 고저를 기초로 발성 기관 전체를 규명하는 생리학적인 방법, 물리학적인 방법에 의한 음의 고저 및 변동을 측정하는 음향학적인 방법 그리고 이산적인 단위로써 변별적인 단위를 밝혀 억양 체계를 기술하는 언어학적인 관점으로 연구되고 있다. 최근에는 의학 및 컴퓨터 공학의 발전으로 근전도(EMG)에 의한 후두 근육 활동의 관찰과 음성 분석 컴퓨터 시스템에 의한 피치의 측정은 억양의 음성 현상을 보다 명확하고 정밀하게 규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방법에 의해서 불어 억양과 영어 억양(Pritchard, 1985), 일본어 억양(Kojima, 1979; Nakamura, 1978; Anan, 1979; Roberge, 1982), 스웨덴어 억양(Gardin, 1981), 독일어 억양(Grover et al, 1987) 등이 비교 연구되어 있다.

그러나 불어와 한국어 억양 비교 연구는 아직 미진한 상태이어서, 불어 교육 현장에서는 불어 억양 교육의 기본 모형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불어 원어민의 억양과 한국인 불어 학습자들의 불어 억양을 시각적으로 비교하여 차이점 및 문제점을 찾아 불어 억양 교육의 효율을 극대화 시키고자 함이 그 목적이다.

2. 연구 방법

불어 원어민과 한국인 불어 학습자의 불어 억양을 비교 연구하기 위해 프랑스인 1명 과 한국인 대학생 3명이 피실험자로 선정되었다. 프랑스인 피실험인은 불어 표준어 사용 지역으로 간주되는 오를레앙 출신으로 파리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20대 여성이며 2년 동안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나 한국어 구사 능력이 거의 없는 프랑스 문화원 교육 파견원이다. 그리고 한국인 피 실험인은 고등학교에서 1-2년간 불어 교육을 받은 20대 초반의 여자 대학생으로 하였다. 불어 억양 모형은 프랑코폰의 불어 억양 비교 연구에 Delattre의 억양 모형을 인용(Grégoire, 1972)하였고, 국내에서는 아직 불어 학습자를 위한 억양 모형조차 개발되어 있지 못한 현실이어서 기초적인 연구로 Delattre가 제시한 억양 모형 <표 1>을 중심으로 실험하였다. 음성 실험에 앞서 불어 원어민과 한국인 불어 학습자에게 각 억양 문형의 언어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몇 차례 피 실험인 스스로 반복 연습하게 한 다음 초고속 음성 분석 컴퓨터 시스템¹⁾을 사용하여 억양 형태를 비교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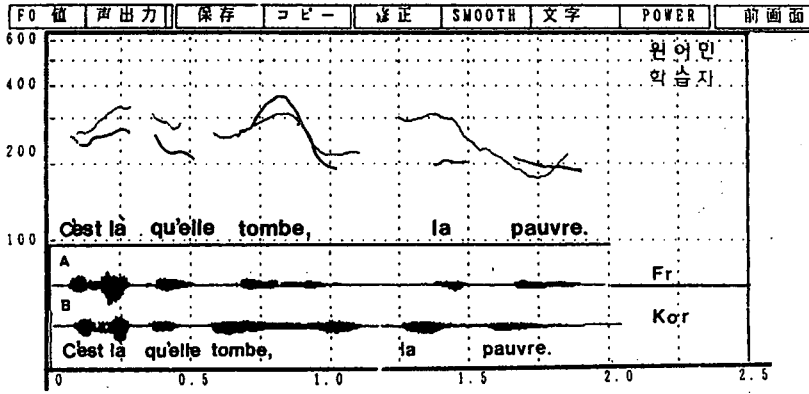
<표 1> 불어 억양 모형

- ① C'est là qu'elle tombe et rien n'y fait. (Major continuation)
- ② Qu'elle tombe ou non, peu importe. (Minor continuation)
- ③ C'est là qu'elle tombe, la pauvre. (Implication)
- ④ C'est là qu'elle tombe. (Finalité).
- ⑤ C'est là qu'elle tombe? (Question)
- ⑥ Quelle tombe? (Interrogation)
- ⑦ Quelle tombe. (Command)
- ⑧ Quelle tombe! (Exclamation)

초고속 음성 분석 컴퓨터 시스템은 동경 대학 RILP에서 자체 개발한 후 상품화된 시스템으로 PC에 디지털신호 처리판(DSP)을 부착하여 음성 신호의 파형, 음형대, 피치 및 강도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그림 1>은 화면상에 나타난 억양 형태이다. 가로는 음의 지속 시간(sec)을, 세로 위는 기저 주파수(Hz)를, 그리고 세로 아래는 불어 원어민(A) 및 한국인 불어 학습자(B)의 음성 파형을 나타낸 것이다. 억양 형태의 실행 및 분석 방법은 일차적으로 억양 모형의 음성 신호를 다이내믹 마이크로폰으로 입력하여 음성 파형으로 교환한 다음 좌, 우 커서를 이동하여 음성 파일로 저장하였다. 그리고 모니터 상에서 피치 항목을 선택하여 저장된 음성 파일을 불러내어 억양 형태를 실행한 후 "smooth"를 선택하면 피치 곡선이 정교하게 나타나므로 억양의 변화에 따라 피치의 값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기록할 수 있다.

1) 초고속 음성 분석 시스템(High Speed Analysis System)은 동경대학 RILP에서 자체 개발한 후 상품화된 시스템으로 PC에 디지털 신호처리판(DSP)을 부착하여 음성신호의 파형, 음형대, 피치 및 강도를 신속하게 측정하는 시스템이다.

<그림 1> 초고속 음성 분석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한 한·불 억양 형태의 비교. 굵은 선은 불어 원어민을, 가는 선은 한국인 불어 학습자를 나타낸 것이고 파형 A는 불어 원어민을, 파형 B는 한국인 불어 학습자를 나타낸 것이다.



3. 억양의 비교 및 분석

음향학적인 관점에서 억양 연구의 가장 중요한 분석 요소는 기저 주파수이다. Léon Martin은 “현재 진행 중인 상당수의 관측 및 실험에 의하면 피치는 중요한 운율 요소들 가운데 압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실로 나타난다. 만약에 피치의 변화가 정확하면 마찬가지로 강세 및 억양의 모든 요소들도 정확한 경향이 있다(In light of a certain number of observations and experiments now in progress, it appears in fact that pitch plays a preponderant role among the essential prosodic parameters. If the variations in pitch are corrected, the whole of the parameters of accent and intonation tends to be corrected at the same time.)”(1972:140).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초고속 음성 분석 컴퓨터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피치 형태의 정교한 실행과 피치 값의 신속한 처리에 의해서 목표 언어 불어를 대상으로 불어 원어민과 한국인 불어 학습자 간의 억양 형태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연속문

연속문은 ‘C’est là qu’elle tombe.’ 다음 후속 하는 문장 또는 단어의 뜻에 따라서 중요한 연속문(Major continuation)과 중요하지 않은 연속문(Minor continuation)으로 분류하였다. 그림 2-A는 중요한 연속문 ‘C’est là qu’elle tombe et rien n’y fait.’를 시각화한 것이다. 굵은 선은 원어민의 억양 패턴을 가는 선은 한국인 불어 학습자의 억양 패턴을 나타낸 것이다. 불어 원어민의 억양 패턴은 문장의 첫머리 C’est là에서 249 Hz-312 Hz까지 상승하다가 문장의 가운데 의문사 ‘que’ 시작 부분 300 Hz에서 대명사 ‘elle’ 끝 부분 230 Hz까지 하강하였다가 동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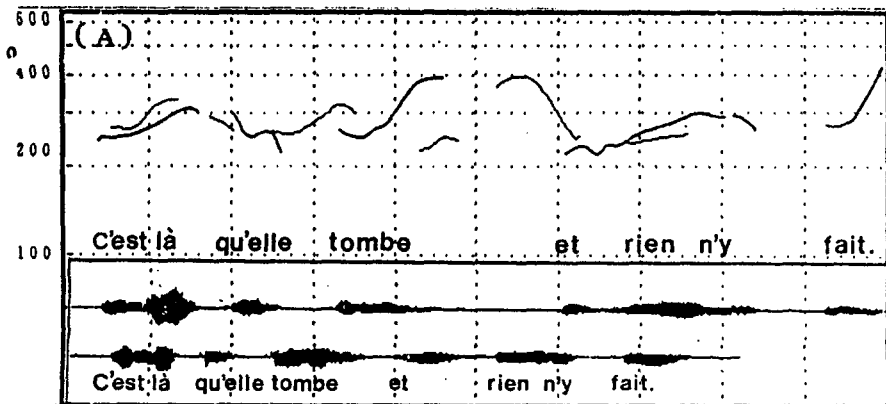
'tombe'에서는 249 Hz-416 Hz까지 다시 상승하였다. 문장의 끝 억양 패턴은 부정 대명사 'rien' 시작 부에서 237 Hz-300 Hz까지 원만하게 상승한 후 'n'y' 끝에서 262 Hz까지 원만히 하강하는 곡선을 보였다가 문장의 끝 동사 'fait'에서 268 Hz-423 Hz까지 가파른 상승을 보였다. 한국인 불어 학습자의 억양 패턴은 프랑스 원어민의 억양 패턴과 비교하여서 문장의 첫머리 및 문장의 가운데 동사 'tombe'까지는 비슷한 억양 패턴을 보였으나 문장의 끝에서 접속사 'et' 다음 부정사 'rien' 시작 부분에서 367 Hz-395 Hz까지 짧게 상승한 다음 255 Hz까지 가파르게 하강하였다가 문장의 끝 동사 'fait'에서는 237 Hz-255 Hz 원만한 상승이 크게 다르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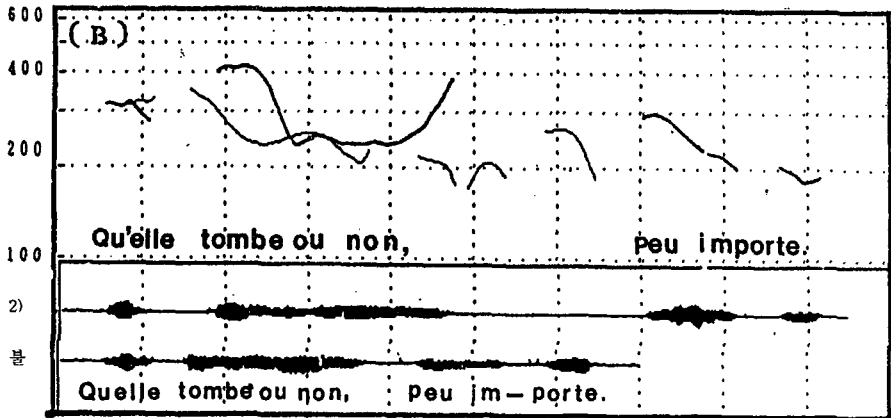
연속문의 전체 발화 시간은 불어 원어민은 한국인 불어 학습자보다 약 0.8초 정도 길게 나타났으며, 문장 내에서 ㄴㄴ동사 'tombe'와 'et' 사이 휴지(pause) 전체 발화 시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림 2-B는 중요하지 않은 연속문의 억양 패턴 'Qu'elle tombe ou non, peu importe'이다. 불어 원어민의 억양 패턴은 문장의 첫머리 'Que'은 312 Hz-275 Hz 하강하고 문장의 가운데 동사 'tombe' 첫 음절에서 416 Hz로 상승하였다가 끝 음절에 231 Hz로 급격하게 하강한 후 접속사 'ou'에서 230 Hz대로 길게 수평조로 유지하다가 부정사 'non'의 음절 말에서 381 Hz로 상승조를 나타냈으며 쉼표 부분에서 약 0.7초 휴지 한 후 문장의 끝 'peu importe'에서 286 Hz-180 Hz로 하강하는 곡선을 나타냈다. 불어 원어민의 억양 패턴과는 다르게 한국인 불어 학습자 억양 패턴은 문장의 첫머리 'Que'에서 320 Hz 수평조를 유지하다가 문장의 가운데 동사 'tombe'에서 부정사 'non'까지 하강하다가 쉼표 부분에서 약 0.2초 짧게 휴지가 나타난 다음 문장의 끝 동사 'importe'의 끝 음절에서 급격히 262 Hz 상승하였다가 184 Hz로 하강하였다.

연속문의 발화 시간은 프랑스인 원어민은 한국인 불어 학습자보다 약 0.8초 길게 나타났으며 문장의 가운데 쉼표 부분에서 불어 원어민은 한국인 불어 학습자 보다 약 0.7초 정도 휴지 시간이 길게 나타나 전체 발화 시간이 긴 원인이 되었다.

<그림 2> 불어 중요 연속문(A) "C'est là qu'elle tombe et rien n'y fait." 및 중요하지 않은 연속문(B) 'Qu'elle tombe ou non, peu importe'의 불어 원어민 및 한국인 불어 학습자의 억양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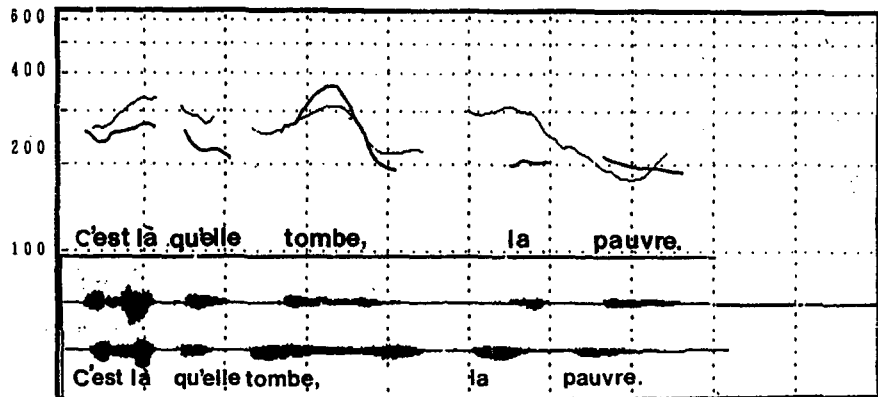


2) 내포문

불어 원어민 및 한국인 불어 학습자의 내포문 'C'est là qu'elle tombe, la pauvre'은 그림 3에 시각화하였다. 불어 원어민과 한국인 불어 학습자의 내포문 강조 문장 'C'est là qu'elle tombe'의 억양 패턴은 불어 원어민과 한국인 불어 학습자의 억양 패턴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문장의 끝의 'la pauvre'에서 불어 원어민은 200 Hz대에 수평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한국인 불어 학습자는 정관사 'la'의 시작 부분에서 312 Hz로 급격히 상승하였다가 형용사 'pauvre'의 끝 부분은 178 Hz로 하강하는 형태로 불어 원어민과는 다른 억양 형태를 나타냈다.

발화 전체 시간은 불어 원어민과 한국인 불어 학습자간 거의 비슷하였으나 종속절 동사 'tombe' 다음 쉼표의 휴지 시간은 불어 원어민이 한국인 불어 학습자 보다 약 2.5배 길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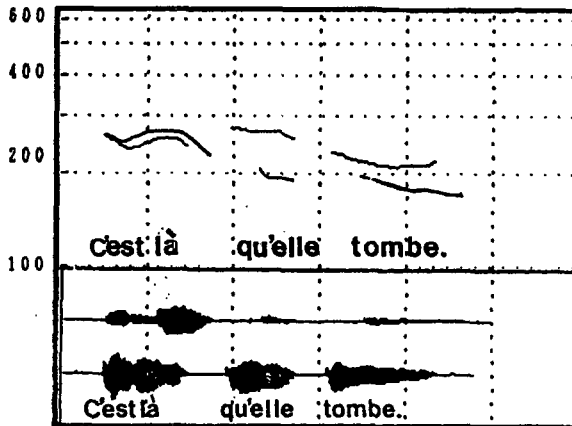
<그림 3> 불어 내포문 'C'est là qu'elle tombe, la pauvre.'의 불어 원어민과 한국인 불어 학습자의 억양 비교.



3) 서술문(Finalité)

그림 4는 불어 서술문 'C'est là qu'elle tombe.'의 불어 원어민 및 한국인 불어 학습자의 억양 형태이다. 문장의 첫머리에서 불어 원어민 및 한국인 불어 학습자는 비슷한 억양 형태로 각각 266 Hz-255 Hz, 255 Hz-237 Hz로 짧게 하강 한 다음 255 Hz-288 Hz 및 268 Hz-231 Hz로 완만한 상승 후 하강하였고 문장의 끝에서도 각각 194 Hz-169 Hz와 231 Hz-209 Hz로 완만히 하강하는 비슷한 억양 형태는 나타내었다. 그러나 문장의 가운데 관계사 'que'에서 불어 원어민은 문장의 첫머리 억양 보다 약 50 Hz 정도 낮게 나타났으나 한국인 불어 학습자는 문장의 첫머리 억양보다 약 10 Hz 높게 나타나 한, 불 억양의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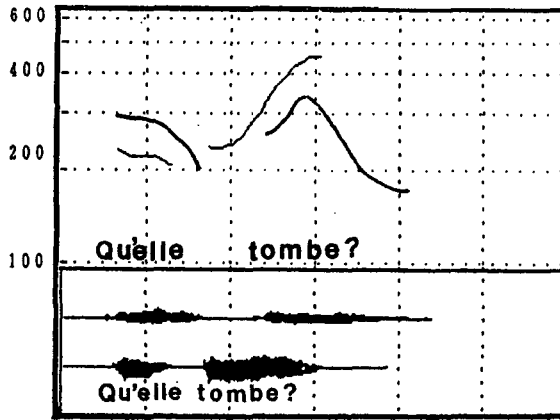
<그림 4> 불어 서술문 'C'est là qu'elle tombe.'의 불어 원어민 및 한국인 불어 학습자의 억양 비교.



4) 의문사 질문(Interrogation)

그림 5는 의문사 'Quelle'을 사용한 의문문 'Quelle tombe!'의 억양 형태이다. 불어 원어민 및 한국인 불어 학습자의 문장 첫머리의 억양 형태는 의문사 'Quelle'에서 각각 300 Hz-200 Hz와 231 Hz-206 Hz로 비슷하게 하강하였다. 그러나 문장 끝 동사 'tombe'에서 불어 원어민과 한국인 불어 학습자 사이 억양 형태가 큰 차이를 나타냈다. 즉, 불어 원어민은 243 Hz-312 Hz-153 Hz로 상승-하강하였으나 한국인 불어 학습자는 237 Hz-454 Hz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억양 형태로 나타났다. 또한 억양 문형 전체 발화 시간도 불어 원어민이 한국인 불어 학습자 보다 0.5 초 길게 실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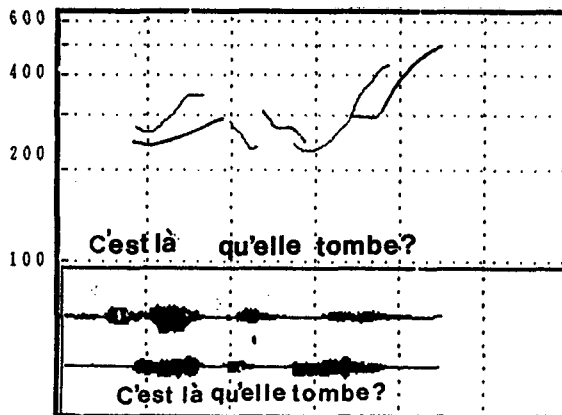
<그림 5> 불어 의문사 'Quelle tombe!'의 불어 원어민 및 한국인 불어 학습자의 억양 비교.



5) 가부 의문문(Question)

그림 6은 질문의 내용에 따라 'oui' 또는 'non'으로 대답하는 불어 가부 의문문 'C'est là qu'elle tombe?'의 억양 형태이다. 불어 원어민 및 한국인 불어 학습자의 문장 전체의 억양 형태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불어 원어민의 억양 형태는 문장의 첫머리에서 강조의 부사 'là'까지 243 Hz-293 Hz 상승하였다가 문장 가운데 종속절의 관계사 'que'에서 주어 'elle'까지 312 Hz-249 Hz 하강하였다가 문장 끝 동사 'tombe'에서는 293 Hz-495 Hz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또한 한국인 불어 학습자도 문장의 첫머리에서 255 Hz-345 Hz 상승하였다가 문장 가운데서 231 Hz 하강 한 후 문장 끝에서는 230 Hz-430 Hz로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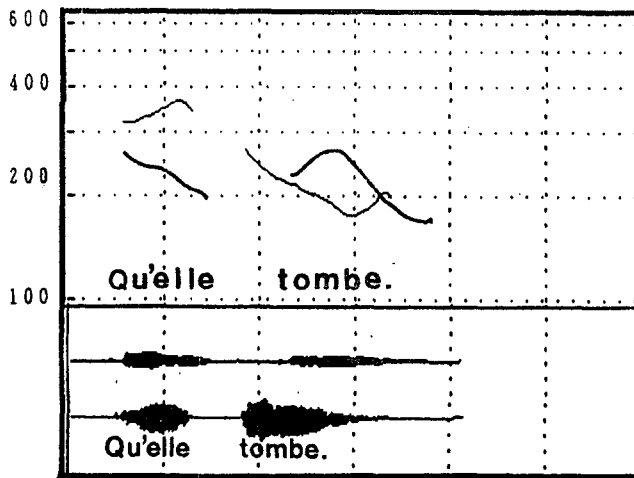
<그림 6> 불어 가부 의문문 'C'est là qu'elle tombe?'의 불어 원어민 및 한국인 학습자의 억양 비교.



6) 명령문(Command)

그림 7은 명령문 'Quelle tombe'의 억양 패턴이다. 불어 원어민은 문장의 첫머리에서 255 Hz-191 Hz로 하강한 다음 문장의 끝에서 243 Hz-267 Hz-184 Hz로 상승-하강하는 '산형' 억양 형태로 나타났으나 한국인 불어 학습자는 불어 원어민과는 정반대로 문장의 첫머리에서 329 Hz-367 Hz-345 Hz로 상승-하강하는 '산'모양의 억양 형태가 나타난 후 문장의 끝 동사 'tombe'에서 268 Hz-175 Hz로 하강하는 억양 형태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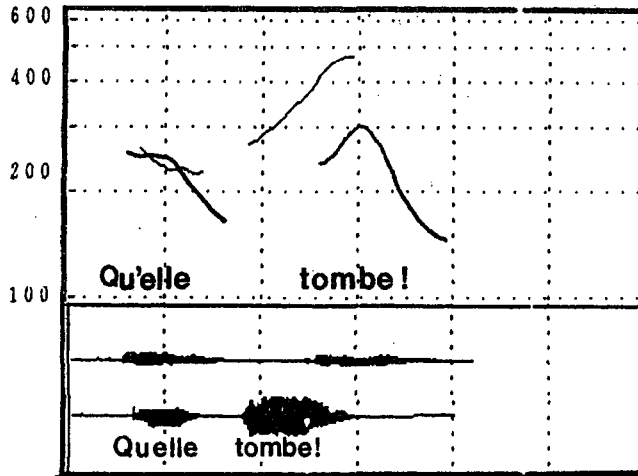
<그림 7> 불어 명령문 'Quelle tombe'의 불어 원어민 및 한국인 불어 학습자의 억양 비교



7) 감탄문(Exclamation)

그림 8은 감탄문 'Quelle tombe!'의 억양 형태이다. 불어 원어민은 문장의 첫머리 'Quelle'에서 262 Hz-249 Hz로 약간 하강에 이어서 169 Hz로 급격히 하강 한 다음 문장의 끝 동사 'tombe'에서는 243 Hz-312 Hz-159 Hz로 상승-하강하는 '산'형 억양 형태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한국인 불어 학습자는 문장의 첫머리 'Quelle'에서 262 Hz-220 Hz로 하강에 이어 수평을 유지하다가 문장의 끝 동사 'tombe'에서는 268 Hz-471 Hz로 급상승하는 억양 형태를 보였다. 억양 문형 전체 발화 시간은 불어 원어민이 한국인 불어 학습자보다 약 0.3초 길게 나타났으며 발화 시간의 큰 차이는 단어 사이에 나타나는 휴지 시간이 한국인 불어 학습자에 비해 불어 원어민의 경우 길게 나타난 점이 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림 8> 불어 감탄문 'Quelle tombe!'의 불어 원어민 및 한국인 불어 학습자의 억양 비교.



4. 맺음말

이 연구의 실험에 사용한 8가지 불어 억양 문형에서 억양소(intonème)를 중심으로 비교하였을 때 문자의 끝, 문자의 가운데 및 문자의 첫 머리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나타났다.

첫째, 문장 끝에서 나타난 차이점은 의문사 질문, 감탄문 및 서술문에서 불어 원어민의 억양은 '산'형 상승 및 하강 곡선을 보였으나 한국인 불어 학습자는 의문사 질문 및 감탄문에서는 가파른 상승 곡선을 서술문에서는 가파른 하강 곡선을 보였다. 또한 중요 연속문에서 접속사 'et' 다음 문장 끝에서 불어 원어민은 완만히 상승한 다음 약간 하강 후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였으나, 한국인 불어 학습자는 접속사 'et' 다음에 가파르게 상승한 다음 하강한 후 완만하게 상승하였다. 그리고 내포문 문장 문자의 끝 억양에서도 불어 원어민은 수평조(continuation)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한국인 불어 학습자는 짧게 상승한 후 완만하게 하강하였다.

둘째, 문장 가운데에서 연속문 모두 불어 원어민 억양은 모두 단어 끝에서 상승의 폭이 한국인 불어 학습자보다 훨씬 컸으나 서술문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종속절 시작 부분에서 불어 원어민 억양이 한국인 불어 학습자보다 낮게 나타났다.

셋째, 문장 처음에서 나타난 불어 원어민과 한국인 불어 학습자간에 억양의 차이점은 의문사 'Que'를 사용한 중요하지 않은 연속문, 명령문 및 의문문이었다. 중요하지 않은 연속문 문장 첫 머리 억양에서 불어 원어민은 수평-하강 곡선을 보였으나 한국인 불어 학습자는 상승 곡선을 보였다. 명령문에서 불어 원어민이 하강 곡선을 보였으나 한국인 불어 학습자는 상승 곡선을 보였고 감탄문 억양 곡선에서 불어 원어민은 수평-하강 곡선으로 나타났으나 한국인 불어 학습자는 하강-수평 곡선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한국인 불어 학습자의 억양 곡선은 불어 원어민 보다 운율 균의 경계 사이 휴지 시간이 짧고, 휴지 후 첫 단어에 과잉 강세의 영향으로 상승 억양 곡선이 나타났다. 또한 설측음 'l'과 목젓 진동음 'n'을 포함한 단어에서 한국인 불어 학습자의 억양 곡선이 불규칙하게 나타나 있어서 불완전한 발음에서 오는 억양 차이로 생각된다. 끝으로 한국인 불어 학습자의 억양 교육은 불어 원어민의 억양 형태에 한국인 불어 학습자의 억양 변화를 시각적으로 중첩하여 비교하면서 청각적인 훈련을 병행하여, 반복적으로 불어 억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사용이 효과적인 억양 교육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Bot, K. de. 1980. "Evaluation of intonation acquisition; a comparison of method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inguistics* 7, 81-92.
- Carton, F. 1974. "Introduction à la phonétique du français." Bordas. Paris.
- Coustenoble, H. N. et Armstrong, L. E. 1934. "Studies in French Intonation" W. Heffer and Sons. Cambridge.
- Delattre, P. 1968. "Syntax and intonation: a study in disagreement." *Study of Sounds XIV*. Phonetics Society of Japan.
- Di Cristo, A. 1971. "L'enseignement de l'intonation française:exercices structuraux pour la class et le laboratoire." *le Français dans le monde* 80. 10-16 et 82, 16-21.
- Faure, G., DiCristo, A et Durant, P. 1976. "La phonétique corrective dans l'enseignement du français langue étrangère" *Le Français dans le monde* 122, 46-49 et 124, 27-43.
- Gardine, E. 1981. Contrastive prosody: "A model and its application." *Studia Linguistica* 35(1-2), 146-165.
- Grégoire, H.C. 1972. Cours et exercices de prononciation, Prosodie, Institut de Linguistique Appliquée, Abijan.
- Kellerman, E. and Smith, N. S. 1986. "Crosslinguistic Influence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Pergaman Press.
- Lepetit, D. 1992. "Inotation française. Enseignement et apprentissage." Canadian Scholars Press. Toronto.
- Léon, P. R. et Léon, M. 1964. "Introduction à la phonétique corrective." Hachette/Larousse. B.E.L.C..
- Léon, P. R. et Martin, P. 1971. "Linguistique appliquée et enseignement de l'intonation." *Etudes de linguistique appliquée* 3, 36-45.
- Selinker, L. 1972. "Interlanguage."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que* 10(3), 209-231.
- Rossi, M., Di, Cristo, M., Hirst, D., Martin, P., Nishinuma, Y. 1981. "L'intonation de l'acoustique à la sémantique" Klincksieck, Paris.

접수일자 : '97. 1. 30.

게재결정 : '97. 2. 24.

-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우편번호 : 560-190)
Tel : (0652) 70-3196 (O), (0652) 70-3671 (Phonetics Lab.)
FAX : (0652) 70-3665